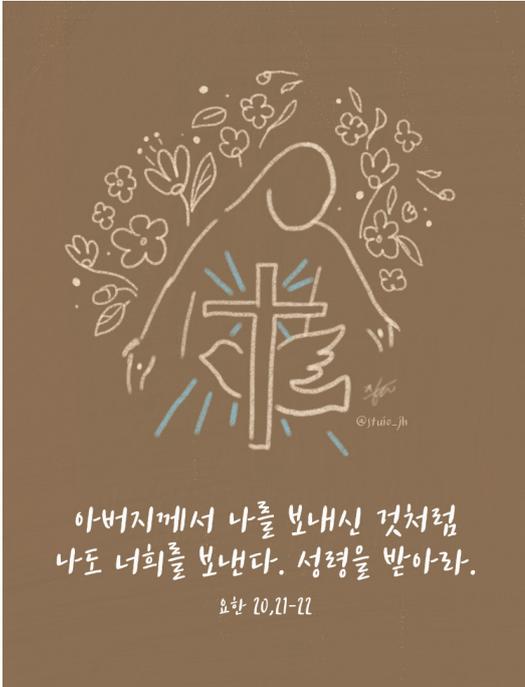


# 청년주보



말씀그림 | 김 가브리엘라

**입당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11

**회답송**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제2독서** 1코린 12,3ㄷ-7, 12-13 <또는 갈라 5,16ㄴ-25>

**부속가 <성령 송가>**

오 소 서 성 령 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 버 지,	오 소 서 은총주님,	오 소 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 로 자	영 혼 의 기뻐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후 식 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 로 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또는 요한 15,26-27; 16,12-15>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청년 인터뷰

##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새신봉사회 루하(RUAH) 고아랑 스테파니아

### Q1. 교회 활동을 하며 하느님을 크게 느낀 순간이 있나요?

루하의 성령세미나를 하며 만났던 하느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세미나를 받으며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었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 Q2. 신앙 활동 중 위기를 만난 경험이 있나요?

20대 초중반, 남들에 비해 변변치 않은 스펙으로 인하여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던 저였지만, 마음이 불안했기에 그것조차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즐기면서 남들처럼 열심히 스펙을 쌓으며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그 안에서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더 의탁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Q3.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구는 무엇인가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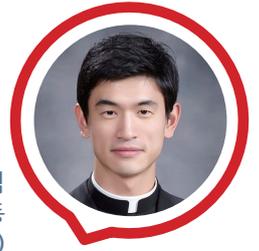
이 말씀을 처음 보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문구에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언제나 기쁘게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이 말씀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아랑 스테파니아 자매님의 이야기는 4면에서 계속됩니다.



청년 성령새신봉사회 루하는 1991년 5월에 발족하여 9월 2일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은 서울대교구 산하의 청년 신앙운동 단체입니다. '루하(RUAH)'는 바람, 숨결, 영,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을 표현합니다.

# 새로운창조를 위한 능력: 용서



최경한 사도 요한 신부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9 지구 강동  
청년 지도(암사동 성당)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차 문을 모두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고 제자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는 유대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다른 이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참된 평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밖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내적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선물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으시며 당신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받은 능력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고 했었지만 주님께서서는 그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는 하느님과의 화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는 평화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성사와 고백 성사를 통해서 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소통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사랑을 배우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자비하시며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굳게 닫은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시어 용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 주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모든 순간의 기록

주님께서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저버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누리세요!

노현우 아우구스티노 수사  
예수회

## 넬라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이 곡은 과거 국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노래이다. 원어가 이탈리아어이기에도 아무래도 사람들 대부분은 가사의 내용보다 그 선율에 더 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만큼 이 노래는 듣는 이를 매료시키는 멜로디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게 있어 이 곡이 보다 특별한 이유는 멜로디의 아름다움 못지않은 어릴 적 일화 때문이다.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세계성체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셨다. 당시 어린이였던 나는 교황님을 만날 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작 대회 당일 아침이 되자 ‘미아가 될 위험이 크다.’라는 이유로 나를 데려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서울행 버스에 타기 위해 온갖 생떼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서러운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울기만 하던 나를 위해 아버지는 비디오를 틀어 주었고, 그렇게 나는 영화 <미션>을 보게 되었다. 폭포를 넘어 마주한 원주민들에게 예수회 신부가 연주해주는 넬라 판타지아의 원곡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s Oboe)’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 영화를 보며 느낀 감동 덕분에인지 교황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서러움은 어느새 가라앉았고, 대신 곡의 감미로운 선율과 아름다운 영화 속 이미지, 그리고 ‘예수회’라는 이름이 어린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로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나는 예수회에 입회했다. 입회 후 수련 과정과 철학 공부를 마쳤지만, 예수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던 내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중간실습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첫 두 달간 생존을 위한 기초 크메르어를 공부하고 곧바로 시골 본당으로 파견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더 작고 더 가난한 마을에 사는 학생들을 찾아가 만나 는 사도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홀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황금색의 황톳길, 에메랄드빛과 같은 녹색 평원, 뜨거운 햇볕을 뚫고 스쳐 지나가는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바람, 문득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의 눈망울이 떠올랐고, 이내 나는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전까지 뜬구름 잡는 듯했던 이탈리아어 노랫말이 비로소 와 닿기 시작했다. ‘나는 하늘을 나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곳을 꿈꾸며, 내 영혼 깊은 곳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자유로움이 나를 위로했고, 아이들을 향한 내 영혼 깊은 곳은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했다. 그리고 점차 나의 미션을 깨닫기 시작했다. ‘환상 속에는 따뜻한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뜻하지만 시원한 바람처럼, 가난과 크메르루주의 상처가 깊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친구와 같은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올라왔다. 이날의 체험 이후 예수회 성소에 대한 내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극성인 요즘,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다시금 캄보디아에 와 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동체 경당에서 홀로 넬라 판타지아를 불러본다. 비록 작은 경당이지만 높은 천장을 타고 맑은 공명이 이루어진다. 악기의 경우에는 나무의 종류와 두께, 결에 따라 서로 다른 공명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유한 악기인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공명이 존재한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이는 어찌면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공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모든 것이 어울려 캄보디아를 품는 따뜻한 바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넬라 판타지아는 그 제목처럼 단순히 ‘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청사진이고, 활동 속에서 반복되는 관상이며, 곧 삶의 방향이다. 내가 계속해서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한다.

함께 보아요  
www.inigo.kr

INIGO

## "평화가 너희와 함께!"

고아랑 스테파니 / 신사동 성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님을 맞이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다시금 다가왔다. 평화! 내가 제일 평화를 얻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가만 생각해보니, 그건 다름 아닌 퇴근 후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미사도 자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사 후 성체조배도 자주 했는데 성당 안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며, 또 그냥 미사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다. 내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함이 나를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며 미사에 자주 참례하게 했다.



내 마음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많이 있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남들은 원하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다. 남들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쌓으며 살아야 할 것 같았던 불안감에 신앙 공동체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고군분투하며 지냈던 세월이 있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 우울해졌다. 결국,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 공동체에 다시 복귀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었기에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사의 힘이였다.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으며 회복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교회 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상황이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나의 하느님은 말없이 묵묵히 내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과거 그렇게 불안함 속에 살았던 내가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번역부 예로니모 부서원 모집

**대상** 번역을 통해 가톨릭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은 가톨릭 청년  
**내용** 영어권 콘텐츠를 국문 번역하여 가톨릭 청년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언어의 선물을 봉헌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02-762-5071~2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홍보부 부서원 모집

**대상** 하느님에 대해, 가톨릭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가톨릭 청년  
**내용**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청년부 홍보부에서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가톨릭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하느님의 말씀과 가톨릭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02-762-5071~2